

단군신화속의 37일과 100일의 의미

The Meaning of 37and 100 days in Dangun Mythology

저자 (Authors)	손노선 Son No-seon
출처 (Source)	한국민속학 54 , 2011.11, 241-271(31 pages) The Korean Folklore 54 , 2011.11, 241-271(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민속학회 The Korean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86500
APA Style	손노선 (2011). 단군신화속의 37일과 100일의 의미. 한국민속학, 54, 241-27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4 13: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단군신화속의 3×7일과 100일의 의미

손노선*

<목 차>

- I. 서론
- II. 시간의 인식
- III. 3×7일과 100일의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단군신화에는 3×7일과 100일이라는 두 개의 시간적 관념이 나온다. 신화에 나오는 이 관념들은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서 '환원'이라는 개념을 제공해준 후설(Edmund Husserl)의 선견(先見)에 입각하여 시간에 관한 사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태양일과 태음일이라는 두 개의 시간적 관념이 도출되었고, 우리 조상들은 해와 달의 숭배와 함께 태양일과 태음일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여성의 생리주기를 달의 주기와 같다고 하여 월경이라고 불려왔다. 보통 이 주기를 28일로 설명을 한다. 그러나 1삭망월이 일어나는 시간은 29.53 태양일이다. 달의 주기를 28일 주기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음일을 적용하여야 한다. 1삭망월 동안의 태음일은 약 28.56일이다. 28이라는 숫자는 7로 나누어지는 숫자로, '1×7·2×7·3×7·4×7'로 분류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3×7일의 의미는 달의 태음주기에 따른 것으로 여성의 월경주기와 맥을 같이하며, 배란이 일어나는 기간인 1×7일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이다. 즉,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임신이 가능한 기간인 1×7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3×7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며 몸을 보하고 정확하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3×7일은 달의 시간인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여성적 시간이다.

우리 조상들은 기재(祈子)를 위해서 100일기도를 하였다. 박문일에 의하면 남성의 정자가 성숙되고 수정력을 갖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일이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 살의 나이를 부여한다. 이는 태중에 있는 기간을 계산한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인간의 임신기간은 280일이다. 여기서 280일은 생리일부터 계산한 것으로, 배란이 일어나는 14일을 빼면 266일이다. 여기에 정자가 수정력을 갖추는데 걸리는 기간인 100일을 더하면 366일로 일 년이다. 100일이라는 시간적 관념 속에는 해의 시간인 태양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시간은 남성의 생리주기를 바탕으로 하며 그 시간은 남성적 시간이다.

연구자의 주유제보자인 한 무당에 의하면, 기자를 위한 100일기도는 부인의 생리일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그 과정은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각 단계는 3×7일씩 4단계와 나머지 16일로 구성되어 있다. (3×7일)×4단계는 84일로 세 번의 생리주기이다. 나머지 16일은 부인의 배란일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100일의 의미는 남성의 생리주기와 여성의 생리주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으로 인간의 탄생을 위한 완벽한 시간이다.

〈핵심어〉 3×7일, 100일, 태양일, 태음일, 월경

I. 서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쓴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게 쓴 글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당시의 세계관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쓰게 된다. 고대에 기록된 신화의 내용도 지금은 그 의미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단군신화에는 많은 상징적 단어가 나온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석해 왔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의 의미는 한국의 많은 선

학들이 해석을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된다.¹⁾

텍스트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문자와 문장들의 구성물이다. 텍스트의 구성요소인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 첫걸음인 단어와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텍스트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다. 언어는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과 ‘그것’의 의미인 ‘그것에 관한’ 것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상징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개인의 해석과정을 통해 결정된다.²⁾ 이 글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볼 수 있는 3×7일과 100일에서 그 의미를 찾고 단군신화가 이야기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3×7일과 100일의 의미는 세 가지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출생의례에서 볼 수 있는 3×7일과 100일이고, 둘째는 사후의례인 천도재의 49재에 포함되어 있는 3×7일과 49재 이후에 행하는 100일재이며, 셋째는 기자(祈子)의례에서 볼 수 있는 3×7일 기도와 100일 기도이다. 이 글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도구로 삼는 것은 세 번째로 기자의례이다. 그 이유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 금기는 단군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금기이기 때문이다. 이 금기의 시간은 기자의례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진다.

3×7일과 100일은 시간(時間)을 표현한 숫자이다. 시간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각(時刻)부터 끝나는 시각까지의 사이를 뜻하기도 한다. 문명권역에 따라서 시간의 기준은 해가 될

1)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지면관계상 필자의 논문과 연관관계가 있는 연구 외에는 거론하지 않는다.

2)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홍익재, 2007), 22쪽.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권역에 있어서는 금성(金星)과 같은 별을 시간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는 해를 시간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고, 달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우리가 ‘하루’라고 부르는 시간은 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달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해를 기준으로 하는 하루는 24시간이며 태양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달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는 이와는 다르다. 즉, 달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는 24시간 49분이며 태음일이라고 부른다. 단군신화에는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관념이 보인다. 하나는 달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적 시간인 태음일로 3×7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적 시간인 태양일로 100일이 그것이다.

두 시간의 관념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설정된 시간이다. 즉, 옹녀가 임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3×7일은 여성적 시간인 태음일로 여성의 생리주기와 관련이 있고, 100일은 남성적 시간인 태양일로 남성의 생리주기와 관련이 있다. 두 시간의 조화는 남성의 정자가 생성되는 시간과 여성의 배란이 일어나는 시간의 합일점인 것이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은 조선을 건국하는 신성한 존재인 단군이 탄생하기 위하여 제시된 금기의 시간이다. 이 금기의 시간은 해를 기준으로 하는 태양일과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일을 이해하고, 인간의 탄생이라는 점과 연관하여 탄생의 필수 조건인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임신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 풀릴 수 있는 상징체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와 달을 이해하고, 우리 조상들이 아기를 갖기 원할 때 행하였던 기자의례의 하나인 100일기도와 남성과 여성의 생리주기를 가지고 단군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을 해석하고자 한다.

II. 시간의 인식

1. 태양일과 태음일

단군신화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시간적 관념이 기록되어 있다. 3×7일과 100일이 그것이다. 두 시간의 성격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인간들이 시간을 인식하게 된 과정을 사유(思惟)해 보고자 한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시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서 인간들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자연의 변화는 해의 변화일 것으로 생각된다. 매일 되풀이 되는 일출과 일몰 그리고 일출에서 일몰로 향하는 과정은 인간들에게 하루의 개념과 아침·점심·저녁 등의 개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매일 되풀이되는 태양의 변화는 하루 이상의 개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형태로 뜨고 지는 태양은 하루나 이들의 관찰로는 뜨고 지는 위치의 변화를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간을 인식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의 변화는 달의 변화일 것이다. 달도 해와 같이 매일 뜨고 지지만 달은 한 달을 주기로 그 형태를 매일 달리하기 때문에 해와는 달리 한 달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달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획득한 인간은 더욱 많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해 뜨는 위치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었고, 3개월 단위로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가 있음도 알 수 있었으며, 사계의 변화가 있고 나면 해가 뜨는 위치도 원래의 자리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일 년이라는 시간적 관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관념은 해와 달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인간들에게 시간이라는 관념을 형성하게 해준 대상은 해와 달로서, 해와 달은 인간들의 관념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시간을 ‘초·분·시·일·월·

년'의 단위로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시간의 단위들은 해와 달의 변화과정을 관찰하여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다.

해와 달은 매일 뜨고 지면서 하루라는 개념을 제공해 주지만 그 시간은 서로 다른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은 태양일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다. 즉, 태양이 자오선을 통과하고 다음날 다시 자오선을 통과할 때의 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달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라는 개념은 이와는 다르다. 달이 자오선을 통과하고 다음날 자오선을 달이 통과하는 시간은 평균 24시간 49분이다. 다시 말하면 달을 기준으로 한 하루는 24시간 49분인 것이다. 이 시간이 태음일이다. 1삭망월(한 달) 동안의 태양일은 29.53일이고 태음일은 약 28.56일이다.³⁾ 이렇게 인간들에게 시간이라는 관념체계를 형성해준 중요한 대상은 해와 달로서 하루라는 시간적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이고 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양일과 태음일의 이해와 구분은 꼭 필요한 것이다.

2. 달의 주기와 월경주기

단군신화에서 3×7일과 100일은 조선을 건국하는 신성한 존재인 단군이 태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시간이다. 단군의 신성성을 확립하기 위한 급기의 시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있다. 남성

3) 달이 지구를 '한번 공전하였다'는 판정은 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태양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항성월'이라하고 그 주기는 27.321661(27일 7시간 43분)이다.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삭망월'이라하며, 그 주기는 29.530589(29일 12시 44분 2.9초)이다. 양자 간에는 2.21일의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가 눈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삭망월이다. 그러므로 항성월은 의미가 없다. 삭망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달이 뜨는 시간은 하루 평균 49분정도 늦어진다(이 차이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의 시간이 달라진다). 태음일은 이 시간을 계산한 시간으로 1삭망월 동안의 태음일 수는 약 28.56일이다. 김동석, 『고전 천문역법 정해』(한국학술정보, 2009), 56~73쪽 참조.

과 여성의 성적교합이 그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교합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남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난자는 남성들의 정자와 달리 시시 때때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성이 된다. 그 주기를 우리는 달의 주기와 같다고 하여서 월경이라고 불러왔다. 서양에서도 월경을 뜻하는 단어인 ‘menstruation’은 ‘달의 변화’를 의미하며, 라틴어 ‘mens’는 달을 뜻한다.⁴⁾

보통 여성들의 월경주기를 달의 주기와 같다고 하여 28일로 설명을 한다.⁵⁾ 그러나 달의 주기를 28일로 설명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삭망월이 일어나는 시간은 29.53태양일이기 때문이다. 달의 주기를 28일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태음일로 잡았을 때야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의 월경주기도 태음일에 적용되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정상월경주기에 대한 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크리스티안 노스럽(Christiane Northrup)에 의하면 정상월경주기는 24~35일이며,⁶⁾ 황태영은 정확한 월경주기는 없으나 28~32일 형이 보통이라고 하였고,⁷⁾ 사전에 의하면 26~32일 형을 정상으로 보고 있으나 보통 28~32일 형이 많다고 한다.⁸⁾ 정상월경주기에 관한 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 월경주기에 관한 기간은 대체로 28~32일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건영외의 연구를 보면, 25명의 실험대상자의 월경주기일은 25~33일로 평균 29.3일을 보이고 있다.⁹⁾ 박은희도 규칙적인 월경주기를 가지는 12

4) 앤서니 에브니(Anthony Aveni), 최광열 역, 『시간의 문화사』(북로드, 2007), 163쪽.

5) 크리스티안 노스럽(Christiane Northrup), 강현주 역,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한문화멀티미디어, 2010), 123~129쪽; 가브리엘리 리히터만(Gabrielle Lichterman), 이수연 역, 『28days』(두드림, 2006).

6) 크리스티안 노스럽(Christiane Northrup), 위의 책, 157쪽.

7) 황태영, 『인신과 출산 280일』(동연, 1997), 197쪽.

8)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두산동아, 1996), 233쪽.

9) 나건영·김암, 『정상월경주기 부인의 성선자극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말초혈액내, 난소정맥내 및 난포액내 농도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6-4(대한산부인과학회, 1983), 361쪽.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평균 월경주기는 29.0일로 나타나고 있으며,¹⁰⁾ 왕영미도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였는데, 28일주기의 여성이 1명이고 29일이 5명 그리고 31일이 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경주기는 29.14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또 다른 연구자 김숙현은 여성들의 정상 월경주기를 28~30일로 보고 28~30일의 월경주기를 가진 3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¹²⁾ 정확한 통계가 없기에 여성들의 평균월경주기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도 살펴본 몇 편의 연구에서 1삭망월을 태양일로 환산한 시간인 29.53일과 비슷한 주기를 보이고 있다.¹³⁾

나건영외와 박은희, 왕영미가 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29.3일 · 29.0일 · 29.14일의 평균 월경주기는 28태음일을 태양일로 환산한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28.56태음일=1삭망월=29.53태양일). 크리스티안 노스럽(Christiane Northrup)은 조수간만과 달의 28일주기를 가지고 여성의 월경을 설명하고 있다.¹⁴⁾ 조수간만과 달의 주기인 28일은 태음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성들의 월경주기인 28일주기는 태음일을 기준으로 한 시간적 개념이며, 오랜 세월동안 태양일을 기준으로 한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지금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또는 그 설명을 간과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

10) 박은희, 「여성의 정상월경주기 중 혈청 Prolactin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Patterns of Circulating Prolactin Levels During the Normal Menstrual Cycle」(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3쪽.

11) 왕영미, 「정상 월경주기중 혈청 Testosterone 및 LH 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SERUM TESTOSTERONE AND LH CONCENTRATIONS IN WOMEN DURING THE OVULATORY MENSTRUAL CYCLE」(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6쪽.

12) 김숙현, 「여성의 정상월경주기 중 혈청 Prolactin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Patterns of Circulating Prolactin Levels During the Normal Menstrual Cycle」(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쪽.

13) 이들의 연구목적이 여성들의 평균월경주기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여성들의 평균월경주기에 대한 논거로서 충분치 못함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문제목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정상월경주기를 가지는 여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14) 크리스티안 노스럽(Christiane Northrup), 앞의 책, 123~129쪽.

있다.

다음일 28일주기는 3×7일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28이라는 숫자는 7로 나누어지는 숫자로, 이것을 나누게 되면 '1×7·2×7·3×7·4×7'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숫자들은 달의 순환에 기초를 하고 있고, 여성들의 월경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이 시간은 '여성적 시간'의 개념인 것이다.

III. 3×7일과 100일의 의미

1. 숫자 3

한국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숫자 3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한다. 선학들은 특히 '삼신(三神)사상'을 중요시하여 '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능화는 삼신(三神)을 설명하면서 태(胎)를 삼(Sam)이라고 보고, 삼신(三神)은 태신(胎神)으로 숫자 '삼'하고는 구별된다고 하였다.¹⁵⁾ 서정범도 삼신의 의미를 출산의 여신, 생명의 여신이라고 하였으나, 숫자 '삼'과는 연관을 짓지 않고 있다.¹⁶⁾ 현용준도 삼승 할망의 '삼'은 숫자가 아니라 '생기다'의 고어 '삼기다'의 어간인 '삼'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교를 하여 아기를 잉태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기다'라고 보아,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로 이해하였다.¹⁷⁾ 구미래는 숫자에 있어서 1은 양수이고, 2는 음수인데, 1과 2가 만나서 이루어진 숫자가 3이므로 3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¹⁸⁾ 위 선학들의 연구를 보면 '삼'

15)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무속고』(동문선, 1991), 178~179쪽.

16) 서정범, 『어원으로 푼 우리문화』(유씨엘아이엔씨, 2005), 121쪽.

17) 현용준,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김문당, 2005), 56쪽.

18)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교보문고, 1992), 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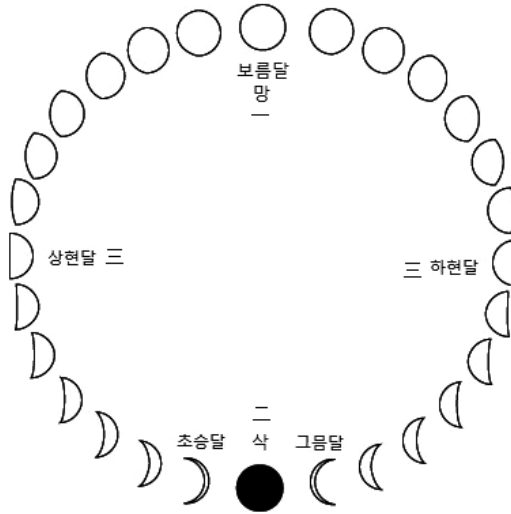
이 어린 아기의 탄생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三’이 생명의 탄생과 연관이 있으나, 숫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위의 선학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생명(三)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양(一)과 음(二)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부(一)와 모(二)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숫자 三은 인간들이 세상을 보는 원리이다. 인간은 나(一, 남)를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 그리고 너(二, 여)를 만난다.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三, 자녀)를 이루게 된다. 이런 사고는 극과 극에 중간지대를 설정하는 사고를 낳았다. 하늘(一, 양, 천)과 땅(二, 음, 지) 사이에는 인간(三, 중, 인)이 있고, 빨강(一, 양, 하늘)과 파랑(二, 음, 땅)을 합하면 초록(三, 중, 생명)이 있으며, 흰색(一, 양)과 검은색(二, 음) 사이에는 회색(三, 중)이 있다. 양인 一과 음인 二가 결합하여 얻어진 숫자 三은 탄생의 의미가 있다. 단군신화의 구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군신화를 압축하여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一(환웅), 二(웅녀), 三(단군)’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음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음양론을 논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양인 해와 음인 달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음양의 세계에서 양인 해와 음인 달은 그 자체로 음과 양의 세계로 분리될 수 있다. 즉, 일출은 양이고, 일몰은 음이며, 보름달인 망은 양이며, 달이 없는 삭은 음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달의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음양의 관계이다. 3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달의 순환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위 선학들이 ‘三’을 인간의 탄생이라는 의미로 보았으므로 인간탄생의 필수조건의 하나인 여성의 월경주기와 그 주기가 같은 달의 순환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표 1> 달의 순환도를 보면, 달이 없는 ‘삭’과 보름달인 ‘망’사이엔 반달(상현달 또는 하현달)이 있다. 반달은 중간지대이다. 즉, 보름달인 망(一, 양)과 달이 없는 삭(二, 음) 그리고 그 중간 형태인 반달(三, 중)이 있다.¹⁹⁾

(도표 1) 달의 순환도²⁰⁾



2. 여성적 시간 3×7일의 이해

가. 달의 순환도와 3×7일

단군신화에서 21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3×7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보름달인 망에서 하현달로 가는 과정이 7일이며, 하현달에서 달이 없는 삭까지가 7일이다. 또 다시 삭에서 상현달까지 가는

19)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삼신할머니’는 인간의 출생과 관련된 신이다. 여기서 삼신이란, 세 명의 신을 말하는 것으로, 태(胎)를 뜻하는 삼(三)은 생명 또는 아기인 숫자 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三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一하고 二가 필요하다. 박일영은 무속의 삼신도에 나오는 삼신을 분석하여, 첫째신은 인간에게 뼈를 주는 신이고, 둘째신은 살을 주는 신이며, 셋째신은 피 내지는 숨을 주는 신이라고 하였으며, 첫째와 둘째신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고, 세 번째 신은 생명력 자체 내지는 생명의 원리를 부여하는 신이라고 보았다. 박일영, 『삼신신앙에 나타난 생명이해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보』 10(한국민속학회, 1999), 69~70쪽.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삼신은 양과 음 그리고 중을 뜻하는 ‘一, 二, 三’을 모두 포함하는 신으로 생각된다.

20) 달의 순환도는 태음일, 즉 하루를 24시간 49분으로 계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과정이 7일이며, 상현달에서 보름달인 망까지 가는 과정이 7일이다. 이렇게 7일이란 단위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한 달(태음일 기준), 즉 '28(4×7)'일 중 분기점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특히 3×7일은 탄생과 연관이 있다.

3×7일과 관련하여 불교의례라고 알려져 있는 49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미래에 의하면, 49재는 고대인도의 중유사상(中有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유는 중음(中陰)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다.²¹⁾ 중음사상에서 천도를 위해서는 3×7일과 7×7일을 중요시하는데, 3×7일과 7×7일은 같은 개념이다.

<도표 2>를 보면, 양이 극대화를 이룬 보름달인 망에서 1×7일 지점인 하현달에 이르면 양의 중간지점이 된다. 즉, '중양(中陽)'이다. 2×7일 지점인 달이 없는 삭에 이르면 양이 소멸되고 음이 극대화된다. 상현달에 이르면 음의 중간지점 즉, '중음(中陰)'이 된다. 이 중음의 지점은 3×7일 지점이다. 그러나 이 3×7일 지점은 7×7일 지점이기도 하다.

구미래에 의하면, 중음의 기간에 출생의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수차례 죽고 태어나는 식으로 여러 7일을 경과하게 되는데, 그 최대 기간이 7×7일이다.²²⁾ 이 말은 3×7일에 출생을 하지 못하면, 그 시기를 놓쳐 7×7일에 그 기회를 다시 맞이한다는 말이다.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부모나 형제나 화상이나 스승이 죽으면, 그 날은 물론 삼칠(3×7=21일)일이나 칠칠(7×7=49일)일에도 마땅히 대승의 경전과 계율을 독송하고 강설하는 경건한 모임을 가져 복이 도래하길 구하고 좋은 삶을 얻길 구하라고 하였다.²³⁾ 다른 기록인, 봉림사(鳳林寺) 진경대사능공탑비(眞鏡大師凌空塔碑)에 의하면 경명왕 7년(923) 진경대사가 세상을 떠나고 3×7일 되는 날 나라의 사신을 통해 부의와 물품을 실어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²⁴⁾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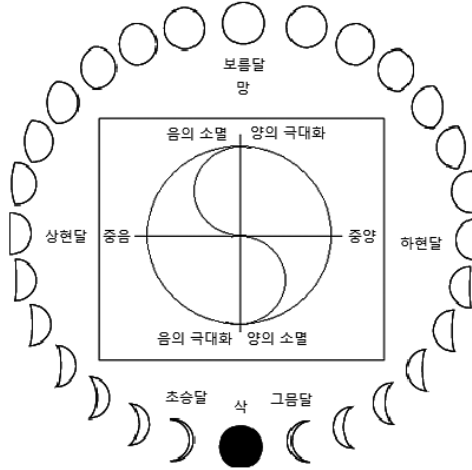
21) 구미래,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민속원, 2009), 23~26쪽.

22) 위의 책, 23쪽.

23) 정승석, 「죽음은 곧 삶이요 열반」, 한국종교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창, 2009), 84쪽.

24) 구미래, 앞의 책, 25~26쪽.

<도표 2> 달의 순환도와 태극도²⁵⁾



불교의 천도재에 있어서 3×7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이로써 불교의 천도재에서 3×7일은 7×7일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임을 알 수 있다.

<도표 2>를 다시 보자. 상현달인 3×7일 지점에서 출생을 못하면, 망인 4×7일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하현달인 5×7일 지점을 거쳐 삭인 6×7일 지점을 지나고 상현달 즉, ‘중음’의 지점에 다시 이르게 되면 7×7일이 된다. 3×7일과 7×7일은 똑같은 중음의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같은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7×7일은 3×7일에 기회를 놓침으로써 다시 맞게 되는 마지막 탄생의 기회인 것이다. 이와 같이 3×7일과 7×7일은 달의 순환도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은 여성의 월경주기와 맥을 같이한다. 즉, 여성의 월경일은 달이 없는 삭에 해당하고, 배란일은 보름달인 망에 해당되는 것이다.

3×7일은 여성의 임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여성이 임신을 하기 위한 조

25) 달의 순환도와 태극도는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 원리』(소나무, 1998), 54쪽 <도표 2-3>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변형한 것임을 밝힌다.

건으로 월경이 있다. 여성들의 월경은 신기하게도 달의 주기에 맞추어져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날짜는 다르지만 달의 주기인 28일(태음일 : 太陰日)을 기준으로 전후의 편차가 있을 뿐이다. 28일의 월경주기 중 임신 가능한 날은 7일(배란기)이다. 28일에서 7일을 빼면, 3×7일 즉, 21일이 남는다. 이 21일은 임신 가능한 7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다.

<도표 3> 여성들의 월경주기

21일(3×7): 임신준비기	7일(1×7): 임신가능기(배란기)
-----------------	---------------------

이렇게 3×7일의 의미로 보았을 때 응녀는 임신 가능기인 1×7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3×7일 동안 마늘과 죽을 먹으며 지냈던 것이다.

나. 3×7일과 통과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통과례를 경험한다. 통과례(rites of passage)라는 용어는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 과정을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 전이의례(transition rites), 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로 구분하고 있다. 반 겐넵은 하나의 통과례에는 분리의례, 전이의례, 통합의례가 모두 통합된다고 이야기한다.²⁶⁾ 통과례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 또는 한 상태(또는 지위)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행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²⁷⁾

윤혜신²⁸⁾은 자신의 연구를 통과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입사의례(入社儀禮, Initiation)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입사의례는 통과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6) 아놀드 반 겐넵(Arnold van Gennep), 전경수 역, 『통과의례』(을유문화사, 2000), 41쪽.

27) 위의 책, 51~52쪽 참조.

28) 윤혜신, 『한국신화의 입사의례적 탄생담 연구』(한국학술정보, 2006).

탄생담을 보면 신화의 주인공들이 어디에선가 머물렀다가 탄생한다. 이는 곧 자궁을 상징하며 다른 문명권의 의례에서는 아예 태반처럼 위막(胃膜) 등을 뒤집어쓴다고 한다. 어디서부터인가 나오는 것을 탄생으로 여겼으며 이 산실로서 자궁을 상징하는 소재들은 지모신(地母神) 관념에서 파생된 이미지이다. 알에서 나온 동명왕, 혁거세왕, 김수로왕, 탈해 이사금이나 궤나 함에서 나온 김알지, 삼을나의 세 배우자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알이나 아이의 상태에서 궤나 함에 들어가 있던 예가 중복되어 있음을 우리 신화에서 볼 수 있다. 성스러운 지역의 외딴 집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들은 양육과 탄생의 산실로서 자궁이미지의 의례적 장소이자 소재였던 것이다.²⁹⁾

윤희신의 논지를 보면, 신화의 주인공들이 탄생하는 알이나, 궤·함 등은 산실로서의 자궁을 의미한다. 황폐강도 한국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합자(合字)와 궤(櫃)류를 여성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³⁰⁾ 반 겐넵과 윤희신이 이야기하는 통과의례나 입사의례는 신화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화에 나오는 상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반 겐넵의 통과의례적 틀로 보았을 때, 동굴 속에서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는 현상은 분리의례이다. 분리의례는 한 상황에서 분리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죽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탄생한다는 순환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 겐넵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분리의례로서의 입사의례를 설명하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초경(初經)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입사식에서 입사의례의 대상자는 이전의 환경에서 분리되는데, 숲이나 특정장소, 특정 오두막 등으로 격

29) 위의 책, 61쪽.

30) 황폐강, 『한국신화의 연구』(새문사, 2006), 21쪽.

리된다. 이 격리에는 많은 금기가 수반된다. 그 중에서도 음식에 대한 금기가 심하다.³¹⁾ 단군신화에서는 그 특정장소가 자궁의 상징인 동굴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굴 속에 호랑이와 곰이 살고 있음’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행하는 분리의례로서의 입사의례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음식에 대한 금기가 나온다. 썩과 마늘이 그것이다.

썩의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썩은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썩을 달인 물을 먹으면, 해독작용을 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어 불규칙한 생리에 효능이 있다. 여성들은 땀물을 하여 정화하기도 한다. 마늘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몸상태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마늘을 먹으면 해독·살균작용을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모세혈관이 확장되므로 성적기능을 돕는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3×7일의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았을 때 ‘동굴 속에서 3×7일 동안 썩과 마늘을 먹고 여인이 되었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곰에서 여인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입사의례에 참여한 응녀는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라서 3×7일 동안 썩과 마늘을 먹으며 몸을 보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배란기를 맞이하기 위한, 즉 임신할 준비를 마친 여인이 되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

3. 남성적 시간 100일의 이해

가. 태양일, 남성적 시간

단군신화에는 3×7일과 함께 100일의 시간이 나온다. 임신과 관련한 한국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100일에 대한 관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다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은 100일이다.

31) 반 켄넵, 앞의 책, 107~162쪽 참조.

실제로 현대 의학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아기에게 수유를 할 경우에 다음 임신가능기간을 12주 이후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자(祈子)를 기원하는 100일기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아기를 갖지 못할 때나 혹은 신의 정기를 받은, 훌륭한 인물이 될 아기를 갖기 원할 때 100일 기도를 하였다. 이 때 부정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간의 교합도 금했다. 여기서 100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박문일³²⁾은 “남성의 정자는 성숙되는데 적어도 74일이 걸린다. 여기서 수정력을 갖추려면 1~2주가 더 걸린다. 그러므로 오늘 남성 자신이 하는 행동은 적어도 100일 뒤에 수태에 이용될 자신의 정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100일전부터 자연임신을 위한 영양, 습관,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한국 전통문화의 기자속(祈子俗)에 나타나는 100일 기도는 매우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100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나이를 한 살로 친다. 이는 태중에 있을 때를 계산한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임신기간은 280일이다. 280일은 생리일부터 계산한 기간으로, 배란이 일어나는 기간인 14일을 빼면, 266일이다. 여기에 남성의 정자가 생성되는 기간인 100일을 더하면, 366일로 일 년이다. 즉, 한국에서 한 살은 남성의 정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³³⁾

다음은 연구자의 주요 제보자³⁴⁾인 한 무당과 기자를 위한 100일기도의

32) 인터넷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 01. 26일 기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고려의학, 1996), 444~447쪽 참조.

33) 이 내용은 박문일, 『태교는 과학이다』(프리미엄북스, 2011), 39쪽을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100일의 계산에 있어서 박문일은 100일 잔치를 넣었고, 필자는 정자의 생성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34) 제보자 배정민(57세, 호적상의 이름은 배외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4세 무렵부터 신의 기운이 있었고, 8세에 황해도 만신 김연홍에게 허튼굿을 하고 12세에 내림굿을 하였으며, 19세에 솟을굿을 하였다. 그의 성격에 대해서는 손노산,

내용을 인터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필 자: 자식을 낳기 위한 100일기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제보자: 애기를 낳기 위한 100일기도는 부인의 생리일이나 생리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7일간은 조상님들께 애를 낳지 못하는 죄를 고하고, 3일 동안은 진심으로 애기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상님들께 고한다. 다시 7일과 3일을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 하루는 남편과 같이 기도를 한다. 남편은 서쪽을 보고 다리를 뻗어 벌리고, 부인은 동쪽을 보고 다리를 뻗어 벌린 채 남편과 발바닥을 마주 댄다. 그리고 조상님들께 애기를 갖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빈다. 이런 과정을 네 번 거친 후 나머지 시간은 삼신항아리를 방안의 높은 곳(손 안타는 곳)에 올려놓고 생미역을 물에 담근 그릇을 상에 올리고 삼신님께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부부합방을 한다. 그렇게 하면 애기를 가질 수 있다.

필 자: 100일 기도를 올리는 중에 금기하는 것은 없나?

제보자: 비린 음식을 가리고, 바깥출입을 금한다. 나쁜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다.³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조금 복잡하므로 앞에서 설명 하였지만³⁶⁾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태양일과 태음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삭망월(한 달)은 태양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9.53일이고,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8.56일이다. 1태양일은 24시간이고, 1태음일은 24.49시간이다. 100일기도에 나오는 100태양일은 태음일로 환산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 하였듯이 3×7일은 태음일을 기준으로 설정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100태양일 즉, 2400시간은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는 24.49시간으로 환산 하면 98태음일($100 \times 24 \div 24.49 = 97.999$)이다. 98일을 1삭망월동안의 태음주

『한국 降神巫의 接神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3~38쪽 A 씨의 사례 참조.

35) 2011년 2월 3일 인터뷰.

36) 앞의 태양일과 태음일의 시간설명 참조.

기인 28일로 나누면 3달 14일이 다. 28일 주기로 설명하는 여성들의 월경 주기를 적용하면 월경일에 100일기도를 시작한 여성은 태음일로 계산하였을 때 정확하게 100태양일(98태음일) 되는 날 배란일을 맞게 된다.

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 100일(98태음일)기도는 부인의 월경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총 4단계와 나머지 14일의 과정을 거친다. 한 단계의 과정은 $(7+3)+(7+3)+1$ 일로 이루어 졌다. 즉, 21일로, 3×7일이다. 이 과정을 네 번 거치면 84일(21×4)인데, 84일은 태음일(28일)기준으로 3달이다. 다시 말하면, 세 번의 월경주기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인 14일은 정확히 배란일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일과 태음일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시간을 적용하여 왔다. 민속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3×7일과 연관된 숫자들도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는 태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다. 여성들의 월경주기를 달의 주기와 같다고 설명하면서 태양일과 태음일에 대한 설명 없이 28일 주기로 설명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태양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사용하면서 태음일에 대한 관념을 망각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박문일이 이야기하는 남성의 정자가 생성되는 기간인 100일과 인터뷰 내용 중의 100일기도 기간에 일어나는 여성의 월경주기는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태양일을 기준으로 하는 100일은 남성들의 정자 생성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며,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는 3×7일의 관념체계인 여성들의 월경주기와 일치하는 시간으로, 음양합일을 위한 완벽한 시간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나오는 100일 간의 금기는 정자가 생성되는 기간 동안 나쁜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까지 금기하여 성스러운 아기 즉, 단군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와 같이 3×7과 100일의 금기는 인간의 생리주기를 이해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햇빛·일광·광명의 이해

『삼국유사』를 보면 “환웅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되,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라고 하였다.³⁷⁾ 환웅은 100일이라고 하였는데, 웅녀는 3×7일의 금기만을 통하여 여인이 되었다. 여기서 100일은 3×7일과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 즉, 100일과 3×7일은 서로 다른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일광(日光), 광명, 햇빛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빛에 감응하여 알을 낳는다. 또 다른 사례로 『원조비사(元朝秘史)』를 보면, 징기스칸의 선조 보돈차르의 어머니 알란코아(阿蘭豁阿)는 매일 밤 황백색(黃白色)의 남자가 천창(天窓) 문설주의 밝은 곳으로 들어와서 알란코아의 배를 쓰다듬고, 그 남자의 광명(光明)이 알란코아의 뱃속으로 스며들어 세 아들을 낳는다.³⁸⁾

여기서 다시 불교의 상징언어라고 알려져 있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란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은 산스크리트어 ‘Namo-Amitabha’ 또는 ‘Namo-Amitayus’를 음역한 것이다. 여기서 Namo는 Namas에서 온 말이다. 이를 파자해보면, ‘Namas+a+mita+ābha’ 또는 ‘Namas+a+mita+āyus’로 이루어진 문장임을 알 수 있다. 그 뜻을 보면 다음과 같다.

Namas = 머리를 조아리는 것.

a = 부정의 뜻을 가진 접두사

mita = 측량하다, 헤아리다.

ābha = 광(光)

āyus = 생명, 수명³⁹⁾

37) 일연, 김원중 역, 『삼국유사』(민음사, 2007), 36쪽.

38) 김화경, 『한국의 설화』(지식산업사, 2002), 232~233쪽.

39) 전수태, 『梵韓大辭典』(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 2007).

따라서 이를 의역해보면, ‘Namo-Amitabha’는 “헤아릴 수 없는 광명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Namo-Amitayus’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에 머리를 조아린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으로 보아 ‘광명’은 ‘생명’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광, 광명, 햇빛 등은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을 임신하게 하는 주요 모티브로써 그것은 생명 또는 정액과 동일시된다.⁴⁰⁾ 태양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고대 한국인들의 사고로 보았을 때, 만물은 태양에 의해서 생성되고 태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태양의 열기가 되살아 날 때 만물은 짝이 돌고 강렬할 때 초목이 우거지고 다시 열기가 적어지면 생명을 다한다. 태양의 열기는 햇빛에 의해서 생긴다. 태양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햇빛은 정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말은 100일 동안 성적교합을 갖지 말라는 말이다. 자궁의 상징인 동굴에 정액의 상징인 햇빛을 접촉하지 말라는 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0일은 남성의 정자가 생성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동안 금기를 지키며 금기를 통하여 생성된, 완전한 생명의 씨앗인 정자가 생성되기를 기다렸다가 100일후에 성적교합을 가지라고 하는 말인 것이다. 즉, 100일 동안 성적교합을 가지지 말고 기다렸다가 100일째 되는 날 성적교합을 갖되, 3×7일의 기간은 100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3×7일의 기간 동안 쭉과 마늘을 먹고, 배란일을 기다렸다가 성적교합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다.

〈도표 4〉 100일 금기

100일 금기	
3×7일: 쭉과 마늘 섭취	1×7일: 배란준비기

40) 황폐강도 일광(日光), 자운(紫雲) 등을 남성내지 남성적인 것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황폐강, 앞의 책, 같은 쪽.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호랑이의 성격에 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⁴¹⁾에 의하면, “그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항상 기원했다”고 한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은 같은 공간에 기거하였다. 같은 공간에 기거를 한다는 말은 그 둘이 같은 종족이던지 아니면 가족관계, 또는 부부관계(또는 예정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그 둘이 혼인을 계획하고 있던 관계일 것으로 생각한다. 곰의 여성적 성격과 대비해서 호랑이는 용맹성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100일의 금기와 관련하여⁴²⁾ 3×7일 동안 신성한 음식인 쑥과 마늘을 먹으며 고통을 감내한 곰과는 달리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호랑이는 신성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금기의 고통을 이겨낸 곰은 혼인이 예정되어 있던 호랑이가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혼인 상대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혼인할 상대가 없어진 곰은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고, 신성한 존재인 환웅은 100일의 금기를 이겨낸 웅녀와 혼인함으로써 단군을 낳게 된다. 제보자의 사례에서 제시하였듯이 100일은 아기를 수정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현상이 일치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쑥과 마늘을 먹는 시기인데, <도표 4>에서 제시하였듯이 100일째 되는 날을 기점으로 28전부터 21일간 쑥과 마늘을 먹고 배란이 일어날 7일 동안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 갖기를 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한국의 무당들은 산에 기도를 갈 때, 7일·3×7일·100일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생활의 각 분야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생제의적(再生祭儀的)인 행위나 사건들은 예외 없이 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황폐강의 논지를 입증하는 하나의

41) 일연, 김원중 역, 앞의 책, 36쪽.

42) <도표 4>에서 제시함.

사례라고 생각한다.

4. 3×7일과 100일의 상호관계

지금까지 3×7일과 100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3×7일은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달의 주기로서 여성의 28일 생리주기에 입각한 시간으로, 배란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100일은 태양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며, 남성의 생리주기에 입각한 시간으로, 정자가 생성되는 시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0태양일을 태음일로 환산하면 98태음일로서 98태음일은 여성들의 월경일로부터 시작하여 정확히 배란일에 해당되는 날이다. 즉, 100태양일은 음과 양이 결합하여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완벽한 시간으로 한국의 민속에서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단군신화⁴³⁾를 보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되,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는 합하면 21개로서 하루 하나씩 먹을 경우 3×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여기서 우리는 3×7일의 의미는 100일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군신화에서 제시한 문장은 ‘너희가 3×7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를 보면 곰은 3×7일의 금기를 통하여 여인의 형상을 얻었는데 반하여 호랑이는 3×7일의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⁴⁴⁾ 이는 사람의 형상을 얻기 위한 3×7일의 금기는 100일의 금기중 후반부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매일 신단수 밑에서 아기 갖기를 희망한다. 이 대목을 필자는 전술⁴⁵⁾ 하였듯이 28일의 주기 중 1×7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43) 일연, 김원중 역, 앞의 책, 같은 쪽.

44) 위의 책, 같은 쪽.

말하면 100일째 되기 28일 전부터 3×7일 동안 쭉과 마늘을 먹는 금기의 기간을 통하여 여인의 몸을 얻고 마지막 7일은 배란일에 맞추어서 신단수 밑에서 기도를 통하여 환웅과 혼인을 하여 단군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단군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모든 신화에 나오는 모티브들이 그러하지만 단군신화 속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은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인간들은 최초로 어떻게 시간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하는 것을 사유하게 되었다.⁴⁵⁾ 이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태양일과 함께 태음일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시풍속의 현상에서도 해와 함께 달은 매우 중요한 숭배와 믿음의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1935년 길림성 집안현 하해방 들판 모두루 무덤에서 발굴된 묵서 명문에 나오는 “추모성왕은 일월지자(日月之子) 하백지손(河伯之孫)”⁴⁷⁾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와 함께 달은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은 해와 달의 후손이라는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모티브이다.

태양일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고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은 24.49시간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 즉 1삭망월의 시간은 태양

45) 본 논문, 261쪽, <도표 4> 참조.

46)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몇 명의 철학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 리코르(Ricoeur)와 후셀(Husserl)이 그들이다. 리코르와 후셀은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후셀은 ‘환원’이라는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어떠한 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제거하고 그것이 최초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유함으로써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윤성우, 『해석의 갈등』(살림출판사, 2005);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에드문트 후셀(Edmund Husserl), 이종훈 역,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 2, 3(한길사, 2009) 참조.

47) 한국역사 고대사분과, 『고대로부터의 통신』(푸른역사, 2004), 35~45쪽.

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9.53일이며,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8.56일이다. 3×7일의 시간체계는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는 1삭망월의 분기점으로 달의 순환도에 기초하고 있고 여성의 월경주기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여성적 시간의 개념인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웅녀는 3×7일 동안 쭈과 마늘을 먹고 여인이 되었다’는 말은 해석이 필요한 문장이다. 태음일을 기준으로 하는 여성의 월경주기는 28일중에서 임신 가능한 배란기 1×7일과 배란일을 준비하는 기간인 3×7일로 나눌 수 있다. 웅녀는 배란일을 준비하는 기간인 3×7일 중에서 2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며 몸을 보하고 마지막 하루는 쭈으로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몸을 정화하면서 임신을 준비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웅녀는 3×7일 동안 쭈과 마늘을 먹으며 몸을 보하고 정화하여, 임신할 준비를 마친 여인이 되었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또 다른 숫자체계인 100일은 남성적 성격을 가지는 시간의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달을 중심으로 하는 숫자 체계인 3×7일이 여성의 생리주기를 상징하는 숫자라면 해를 중심으로 하는 숫자체계인 100일은 남성의 생리주기를 설명하는 숫자인 것이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만 박문일에 의하면 남성의 정자가 숙성되고 수정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은 100일이다. 즉, 100일전에 생성되기 시작한 정자가 오늘 성적교합에서 방출되는 것이다. 고대인들이 과연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자를 위한 100일 기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더욱 부각된다.

우리 조상들은 기자를 위한 100일기도를 하여왔다. 필자의 주요제보자인 한 무당과의 인터뷰 결과 기자를 위한 100일기도는 부인의 월경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태양일인 100일과 태음일인 3×7일의 의미로 보았을 때, 기도를 시작하고 정확히 100일 뒤에 부인의 배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00일은 남녀의 음양합일을 위한 완벽한 날로 우리 조상들이 신성한 날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정자가 생성되는데 100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자를 위해서 10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 때나 부인의 배란일에 맞추어서 합방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나고 일 년이 지나야 한 살의 나이를 부여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의 나이를 부여하였다. 여기서도 100일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통 임신기간을 280일이라고 한다. 이 기간은 생리가 있는 날부터 계산한 것으로, 배란일까지의 14일을 빼고 나면 266일이다. 여기에 남성의 정자 생성일인 100일을 더하면 366일로 일 년이다. 100일의 의미는 태어난 아기의 나이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단군신화에 나오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햇빛·광명·일광 등은 건국신화의 주인공을 임신하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로써, 태양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금기를 통한 신성한 정자가 생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인 100일 동안 성적교합을 하지 말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3×7일의 금기기간은 100일의 금기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단군신화에는 많은 상징이 존재한다. 한두 편의 논문으로 신화에 나오는 상징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7일과 100일은 그 중의 일부일 뿐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3×7일과 100일의 의미는 다른 상징을 해석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폐강⁴⁸⁾은 “신화의 의미는 과거 이상으로 현재와 미래에 뻗어져 있다.”, “신화에 의하여 인간들은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또 이것을 실현한다. 인간생활의 각 분야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생제의적(再生祭儀的)인 행위나 사건들은 예의

48) 황폐강, 『韓國의 神話』(단국대학교출판부, 1988), 7~8쪽.

없이 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화에 나오는 상징의 의미는 우리의 삶과 다양한 민속의 현장에 녹아들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글을 마무리 한다.

■ 참고문헌

■ 국내연구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 _____,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민속원, 2009.
- 김동석, 『고전 천문역법 정해』, 한국학술정보, 2009.
- 김숙현, 「여성의 정상월경주기 중 혈청 Prolactin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Patterns of Circulating Prolactin Levels During the Normal Menstrual Cycle」,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 나건영 · 김암, 「정상월경주기 부인의 성선자극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말초혈액 내, 난소정맥내 및 난포액내 농도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6-4, 대한산부인과학회, 1983.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고려의학, 1996.
-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 두산동아, 1996.
- 박문일, 『태교는 과학이다』, 프리미엄북스, 2011.
- 박은희, 「여성의 정상월경주기 중 혈청 Prolactin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Patterns of Circulating Prolactin Levels During the Normal Menstrual Cycle」,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일영, 「삼신신앙에 나타난 생명이해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보』 10, 한국

- 민속학회, 1999.
- 서정범, 『어원으로 푼 우리문화』, 유씨엘아이엔씨, 2005.
- 손노선, 『한국 降神巫의 接神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왕영미, 『정상 월경주기중 혈청 Testosterone 및 LH 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SERUM TESTOSTERONE AND LH CONCENTRATIONS IN WOMEN DURING THE OVULATORY MENSTRUAL CYCLE』,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 원리』, 소나무, 1998.
- 유영욱,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홍익재, 2007.
- 윤성우, 『해석의 갈등』, 살림출판사, 2005.
- 윤혜신, 『한국신화의 입사의례적 탄생담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 일 연, 김원중 역, 『삼국유사』, 민음사, 2007.
- 전수태, 『梵韓大辭典』, 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 2007.
- 한국역사 고대사분과,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 정승석, 『죽음은 곧 삶이요 열반』, 한국종교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창, 2009.
- 현용준,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황태영, 『인신과 출산 280일』, 동연, 1997.
- 황폐강, 『韓國의 神話』, 단국대학교출판부, 1988.
- _____, 『한국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 국외연구

- 아놀드 반 겐넵(Arnold van Gennep),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 앤서니 애브니(Anthony Aveni), 최광열 역, 『시간의 문화사』, 북로드, 2007.

크리스티안 노스럽(Christiane Northrup), 강현주 역,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한
문화멀티미디어, 2010.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 이종훈 역,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
념들』 1, 2, 3, 한길사, 2009.

가브리엘리 리히터만(Gabrielle Lichterman), 이수연 역, 『28days』, 두드림, 2006.

The Meaning of 3×7 and 100 days in Dangun Mythology

Son, No-seon*

There are two time concepts in Dangun mythology; 3×7 and 100 days. Because 3×7 and 100 days showed their abstract images, it was impossible to find the meaning of them. After providing the concept of reversion for interpretation of the symbolism, I thought about the time based on Edmund hursserl's foresight. In this process, two time concepts were drawn; solar day and lunar day. Also it was realized that our ancestors, with the worship of sun and moon, considered them important.

We have called women's mense 'Wolkyoung', for women's menstrual cycle is the same as that of the moon. The cycle is commonly known to be 28days. But, the amount of time it takes for a synodical month to occur is 29.53 solar days. To explain the moon cycle as 28days, a lunar day should be applied. The lunar days for a synodical month is about 28.56. The number, 28, which is divided by 7, can be classified into '1×7' '2×7' '3×7' and '4×7'. The meaning of 3×7 days in Dangun mythology was based on the lunar cycle. The period is the same as women's menstrual cycle and is the time for preparing 1×7 days, the period for ovulation. That is, to prepare 1×7days, for which pregnancy is possible, they strengthened and cleaned their bodies eating garlic mugwort. In this sense, 3×7 days is based on lunar days, time of the moon, and it is feminine

* Graduate student, Yeungnam University

time.

Our ancestors conducted 100day's pray for bearing sons. According to Park mun-il, the amount of time it takes for sperm to mature and have fertilizing power is 100days. In Korea, a baby is born, it has one year of age. It means the period of maternity. A pregnancy period of human is generally 280days. 280days is a value acquired by counting from menstrual period. If 14days, the period for ovulation, is counted out, it becomes 266days. If 100days, the time for sperm to have fertilizing power, is added to it, a pregnancy period is 366days, 1 year. The time concept of 100days is based on a solar day, the time of the sun. The time is a masculine time, based on a physiology cycle of men.

According a shaman, a main informant of me, a 100day's pray for bearing a son starts based on a woman's menstrual period. The process is classified into 5 steps. Each step consists of four steps by 3×7 days and the rest, 16days.

'(3×7days)×4' step is 84days, three times of menstrual cycle. The rest, 16days, is exactly almost the same as the woman's ovulation day. From this, we can draw the fact that 100days in Dangun mythology means the time in which the physiological cycle of men and menstrual cycle of women are exactly the same, or perfect time for the birth of human being.

〈Key-words〉 3×7days, 100days, solar day, lunar day, menstruation

* 논문투고일 : 2011. 8.31. 심사완료일 : 2011.11. 4. 게재확정일 : 2011.11.11.